

『천주총론』(天主總論)과 프레마르의 라틴어 번역본 연구

곽문석**
김보름***

중국어·라틴어본 비판 정본과 번역*

초록 본 논문은 18세기 예수회 선교사 조제프 앙리 마리 드 프레마르(Joseph Henri Marie de Prémare, 중국명 馬若瑟, 1666-1736)의 중국어 문법서 *Notitia Linguae Sinicae*에 수록된 한문 서학서 『천주총론』(天主總論)과 그 라틴어 번역문 “De Deo et attributis divinis generalis discursus”을 대상으로 한 문헌학적 연구이다. *Notitia Linguae Sinicae*는 서양 언어로 된 최초의 중국어 문법서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속에 수록된 한문서학서와 그에 대한 라틴어 번역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한문본 『천주총론』이 라틴어로 역번역되었다는 점에서 동서 문화·언어 교류의 귀중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 정본은 마련되지 않아서 후속 연구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프레마르의 친필본인 프랑스로립도서관(BnF) 소장 필사본 *Notitia Linguae Sinicae* (Chinois 9259)의 fols. 167-180을 이후 출판물들과 비교하였는데, 최초 간행본(editio princeps)에서 필사본과는 다른 이문들과 오류들을 발견하여 제시하였고, 한문본 『천주총론』과 라틴어 번역본의 비판 정본을 확정하였다. 특히 각 이본 간의 차이를 비판 주석 장치(apparatus criticus)를 활용하여 정리하고, 텍스트의 전송 과정과 여러 판본 간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주제어 『천주총론』, 프레마르, 프랑스로립도서관 Chinois 9259, 역번역, 한문 서학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HK+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3058791).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교수, 제1저자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연구교수, 교신저자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18세기 한문 서학서 『천주총론』(天主總論)과 이 문서의 라틴어 번역본 “De Deo et attributis Divinis generalis discursus”(천주와 신적 속성에 대한 총론)를 문헌학적으로 분석하여 비판 정보와 번역본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문 서학서 『천주총론』은 『서가회장서루명칭천주교문헌속편』(徐家匯藏書樓明清天主教文獻續編) 제14권에 실려 있는데, 저자 정보가 수록되지 않은 채 “무명씨”(無名氏)로 표기되어 있다.¹ 약 1,200자의 이 소책자에는 천주의 존재론적 특징과 속성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에서 천주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점에서 물질적 사물들과는 존재론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이며 자족성은 물론 전능, 전지, 전선, 전미하다는 속성을 가짐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인간세계의 군주나 부모, 스승보다 위대한 천주를 따를 것을 강조하고, 『성경』에 의거하여 삼위일체라는 신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내용은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조제프 앙리 마리 드 프레마르(Joseph Henri Marie de Prémare, 1666-1736)²의 중국어 학습서 *Notitia linguae Sinicae*³에 수록되어 있고, 라틴어로는 “De Deo et attributis Divinis

1 Nicolas Standaert, Ad Dudink, Wang Renfang (Eds.) (2013), 『徐家匯藏書樓明清天主教文獻續編』 14, Taipei: Taipei Ricci Institute, pp. 203-348.

2 프레마르는 1683년 예수회에 입회한 후, 1698년 조아킴 부베(Joachim Bouvet, 1656-1730)의 인술을 받아 프랑스를 떠나 중국으로 갔으며, 주로 강서(江西) 지방에서 활동했다. 프레마르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Lundbæk (1991), *Joseph de Prémare (1666-1736), S. J.: Chinese Philology and Figurism*,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pp. 16-62.

3 이 책은 중국어 구어와 문어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중국 문학에 대한 섹션을 만들어 고대 경전에서부터 사서(四書), 노장(老莊)과 예서(禮書)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따라야 할 독서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 외에 라틴어로 기술된 중국어 문법서로는 마르티니(Martino Martini, 1614-1661)의 *Grammatica Linguae Sinesis*(1696 출간), 바로(Francisco

generalis discursus”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아울러 번역되어 있다. *Notitia linguae Sinicae*는 서양 언어로 된 최초의 중국어 문법서 중 하나로, 중국에서는 『한어찰기』(漢語劄記)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중국어의 지식』으로 국역되었다.⁴ 중국어학 분야에서 특히 주목을 받으면서, 이 책에 실린 한문 서학서 『천주총론』과 그 라틴어 번역본은 “문법서의 예문으로 보기에 는 너무나 종교적”인 이질적인 자료로 간주되어 왔다.⁵ 그러나 최근에 선교사가 중국 독자들을 위해 저술한 한문 서학서가 다시 선교사에 의해 서양 독자들을 대상으로 라틴어로 재번역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동서 교류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⁶

그러나 전면적인 판본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소장된 프레마르의 친필 필사본 *Notitia Linguae Sinicae* (Bnf Chinois 9259)에 실린 『천주총론』 한문본과 라틴어 번역본을 저본으로 삼고 기타 간행본들을 비교하여 비판적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⁷ 『천주총론』 한문본과 라틴어 번역본은 fols. 167-180에 해당

Varo, 1627-1687)의 *Arte de la lengua Mandarina*(1682년 저술) 등이 있다. 각 책의 특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Anna Di Toro and Luisa M. Paternicò (2025), “From Martini to Prémare: Early analytic Descriptions of Mandarin Chinese in Latin,” In *New Perspectives in Global Latin: Second Conference on Latin as a Vehicle of Cultural Exchange Beyond Europe*, edited by Elisa Della Calce, Paola Mocella, and Simone Mollea, Berlin: De Gruyter.

4 조경환 역주(2020), 『중국어의 지식』 1·2, 서울: 세창출판사.

5 조경환(2020), 『중국어의 지식』 2, p. 360.

6 곽문석·김보름(2025), “서양에서 중국으로, 다시 서양으로: 『천주총론(天主總論)』과 프레마르(Prémare)의 라틴어 번역,” 『韓國教會史學會誌』 70, pp. 47-77.

7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본을 프레마르의 친필본이라고 보는 근거는 각기 다른 필체로 기록된 인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주재 프랑스 선교회의 책임자 에르비외(Julien Placide Hervieu, 중국명 赫蒼璧, 1671-1746)의 명에 따라 프랑수아 노엘(François Noël, 중국명 衛方濟, 1651-1729) 외 3명이 프레마르의 *Notitia Linguae Sinicae*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당시 한문 서학서에서 사용된 한문 용어에 해당하는 라틴어 용어가 어떤 것이었는지, 서양인들이 한문 개념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한문과 라틴어 필사본에 대한 최초 간행본(editio princeps)은 1831년에 말라카에서 출판되었으며,¹¹ 이를 바탕으로 미국 출신 개신교 선교사 브리지먼(J. G. Bridgman)에 의해 1847년에 영어 번역본이 출판되었다.¹² 이후 이 영어본에 주로 의거한 한국어 번역본이 2020년에 출판되었다.¹³ 또한 서가회장서루(徐家匯藏書樓)에 소장되어 있는 한문본 『천주총론』의 영인본이 2013년에 출판되었다.¹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출판된 판본들과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전까지 진행된 연구는 프랑스국립도서관의 필사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대체로 말라카본을 근거로 진행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필사본과 최초 간행본 말라카본과의 문헌학적 비교 분

-
- 10 이러한 예로 포르투갈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주앙 소에이루(Joao Soeiro, 蘇如望, 1566~1607)의 『천주성교약언』(天主聖教約言)과 그에 대한 라틴어 번역본 *Divine Legis compendium*에 관한 연구가 있다: 곽문석, 김보름(2023), “주앙 소에이루의 『천주성교약언』(天主聖教約言)...그 동서 교류 문헌으로서의 가치”, 『공존의 인간학』 10, pp. 7-50. 이외에 부베(Joachim Bouvet, 白晉, 1656-1730)의 『고금경천감』(古今敬天鑒)과 한림(韓霖, 1598?-1649)과 장경(張賡, 1569-?)의 『성교신증』(聖教信證)이 있을 뿐이다.
- 11 P. Jos. de Prémare (1831), *Notitia linguae Sinicae*, Malacca: Academia Anglo-Sinensis, pp. 229-234.
- 12 J. G. Bridgman (1847), *The Notitia Linguae Sinicae of Prémare*, Canton: The Office of the Chinese Repository, pp. 278-285. 이 영역판에 많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자세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Knud Lundbæk (1991), *Joseph de Prémare (1666-1736), S. J.: Chinese Philology and Figurism*,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p. 179.
- 13 조경환(2020), 『중국어의 지식』 2, pp. 245-255.
- 14 Nicolas Standaert, Ad Dudink, Wang Renfang (Eds.) (2013), 『徐家匯藏書樓明清天主教文獻續編』 14, Taipei: Taipei Ricci Institute, pp. 203-348. 이 한문본을 언급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林熙強(2021), “馬若瑟《漢語割記·下編·第四章》中的西方修辭觀”, 『中正漢學研究』, p. 216(주 61 참고).

석을 통하여, 말라카본에 수록된 한문본과 라틴어본의 오류들을 찾고 목록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 오류들이 영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에 전달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비판 주석 장치(*apparatus criticus*)를 활용하여 여러 판본 간의 차이와 교정 내용 등을 포괄하는 비판 정본(*editio critica*)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번역을 제시하였다. 비판 정본은 필사본과 말라카본을 비교하였고, 한문본은 필사본과 말라카본과 함께 브리지먼의 것과 서가회장서루본과 한국어 번역본에 수록된 본문 전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비판 정본과 번역은 원문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이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전해진 텍스트의 전승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2. 『천주총론』과 라틴어 번역본의 구성과 선행 연구

프레마르의 중국어 문법서 *Notitia Linguae Sinicae*에 수록된 『천주총론』과 라틴어 번역본은 중국어 문체의 수사학을 가르치기 위한 예문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학 내용을 담은 고급 한문 문장이기도 했다. 『천주총론』은 약 1,200자 분량의 짧은 글로 구성되며, 내용상 신학적으로는 유일신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며, 언어적으로는 고급 중국어 문장을 예시하는 것이다. 다양한 수사적 기법(대구, 반복, 비유 등)이 사용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주(*Deus*)는 무형무상한 존재이며 만물의 원인임.
- 전능, 전지, 전선, 전미의 속성을 갖고 있음.
- 인간은 천주를 왕, 부모, 스승보다 더 높이 공경해야 함.
- 삼위일체의 신비는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성경을 통해 받아들여야 함.

본 연구에 앞서 한문본 『천주총론』과 프레마르의 라틴어 번역본에 관한 선행 연구가 출판되었다.¹⁵ 주요 논점은 프레마르의 작업을 문헌학적으로 검토하여, 동서교류 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었다. 이 문헌이 동양에서 서양으로의 역번역(reverse translation)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번역 과정에서 개념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신학적 용어(예: ‘천주’, ‘자연’, ‘신’)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었는지를 심층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국역본의 번역 오류와 문맥상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문헌학적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학적 의미에 부합하는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동서 문명 간 번역에서 발생하는 개념적 충돌과 변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천주총론』이 서학서 및 선교 문헌으로서 가지는 학술적 의의를 부각시켰다. 이에 후속 연구로서, 본 연구는 이전 선행 논문 구성의 바탕이 되는 필사본과 이후 간행된 문헌들 간의 전체 비교 연구 결과를 비판 정본 형식으로 제시한다.

3. 필사본과 최초 간행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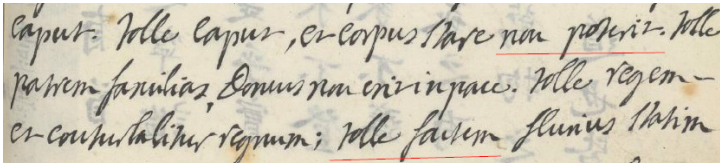
필사본(이하 A)과 말라카본(이하 B)의 비교를 통해서 라틴본에서 총 16군데, 한문본에서 총 10군데의 이문을 발견하였다. 이문의 종류는 ‘문장 결락’, ‘단어 및 문자 누락’, ‘문자 추가’, ‘어순 및 통사적 재배열’, ‘정서법적, 형태론적 변이’, ‘어구 및 단어 교체’ 등이다. 이 이문들은 이후 출판된 영역본과 한국어 번역본에 그대로 전승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문헌에 대한 번역

15 곽문석·김보름(2025), pp. 47-77. 프레마르의 생애와 중국어 학습서 *Notitia linguæ Sinicae*에 대한 소개는 이 논문의 53-55쪽을 참고하라. 이 외의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何群雄 (Ed.) (2002), 『J. プレマールおよびその『中国語ノート』』, Tokyo: Sangensha; 李真 (2014), 『马若瑟‘汉语札记’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Paul Kua (2020), “Prémare’s *Notitia Linguæ Sinicae*, 1728-1893: the Journey of a Language Textbook”, *East Asian Publishing and Society* Vol. 10, Leiden: Br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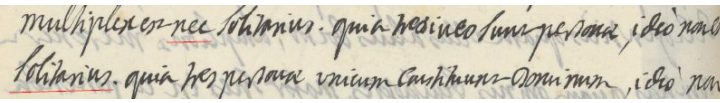
및 연구가 필사본 원문이 아닌, 많은 이문을 간직하고 있는 말라카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라틴어본과 한문본의 이문은 다음과 같다.

3.1. 라틴어본 비교

3.1.1. 문장 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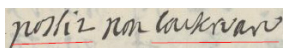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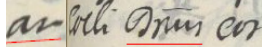
A [167]	
B [230]	<p>et corpus stare <u>non poterit; tolle fontem</u>, fluvius statim areseet; tolle radicem, arbor non</p>

필사본 A의 “non poterit”과 “tolle fontem” 사이에 있는 “tolle patrem familias, domus non erit in pace, tolle regem, et conturbabitur regnum”라는 문장 전체가 B에서 결락되었다.

A [180]	
B [234]	<p>vel plures statuemus Dominos et sic erit multiplex. At Deus nec multiplex est <u>nec solitarius</u>, quia tres personae unicum constituunt Dominum. Ideo non est multiplex. Lice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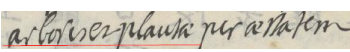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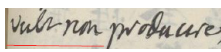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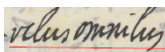

필사본 A의 “nec”과 “solitarius” 사이에 있는 “solitarius quia tres in eo sunt personae, ideo non est”라는 문장 전체가 B에서 결락되었다.

3.1.2. 단어 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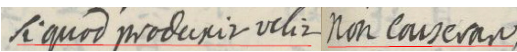
A [173]		A [179]	
B [230]	<u>possit conservare</u>	B [232]	<u>at Dominus eos</u>

필사본 A의 “possit”과 “conservare” 사이에 있는 단어 “non”이, “at”와 “Dominus” 사이에 있는 “caeli”가 B에서는 누락되었다.

3.1.3. 어순 및 통사적 재배열



A [169]		A [173]	
B [230]	<u>plantae et arbores</u> per aetatem	B [231]	<u>non vult producere</u>
A [175]		A [179]	
B [232]	dat <u>omnibus rebus</u>	B [232]	<u>fecit haec omnia</u>

필사본 A의 “arbores et plantae”가 B에서는 “plantae et arbores”로, “vult non”이 “non vult”로, “rebus omnibus”가 “omnibus rebus”로, “haec omnia fecit”이 “fecit haec omnia”로 어순이 재배열되었다.

A [173]	
B [231]	<u>Si conservare non velit quod produxi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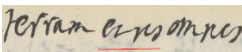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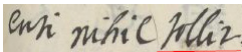
필사본 A의 “Si quod produxit velit non conservare”가 B에서는 “Si conservare non velit quod produxit”로 통사 구조가 재배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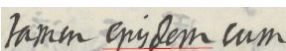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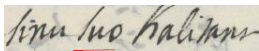
3.1.4. 정서법적 또는 형태론적 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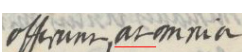
A [169]		A [177]	
B [230]	omnia <u>corporea</u> producit	B [232]	hoc <u>summe</u> ejus

필사본 A의 “corporea”가 B에서는 “corpora”로, “summae”가 “summe”로 변경되었다.

3.1.5. 어구 및 단어 교체

A [173]		A [173]	
B [230]	terram, <u>resque</u> omnes	B [231]	enti nihil <u>auffers</u>.

A [175]		A [175]	
B [232]	tamen <u>ejusmodi</u> cum	B [232]	sine <u>ejus</u> habi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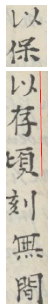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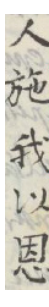



A [179]	
B [232]	offerunt, <u>et</u> omnia

필사본 A의 “et res”가 B에서는 “resque”로, “tollit”이 “auffers”로,

“ejusdem”이 “ejusmodi”로, “suo”가 “ejus”로, “at”가 “et”로 교체되었다.

3.2. 중국어본 비교

3.2.1. 한자 누락, 추가 및 어순 재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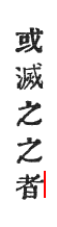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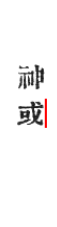




A	B	A	B	A	B	A	B
[174]	[231]	[180]	[233]	[178]	[233]	[168]	[229]
							

A본의 “以”와 “頃” 사이에 있는 한자 “存”이 B본에서 누락되었다. “三位”와 “共一主” 사이에 있는 구문 “故不孤三位” 전체가 결락되었다. “施”와 “我” 사이에 한자 “於”가 추가되었고, 구문 “帝天上主”가 “上帝天主”로 재배열되었다. 이후 출판된 브리지먼의 영역본과 한국어 번역본도 B본을 따라 누락, 결락, 재배열되어 있다.

3.2.2. 교체

A본의 한자 “群”이 B본에서 이체자인 “羣”으로 교체되었고, “大”가 “天”으로, “旨”가 “者”로, “哉”가 “或”으로, “義”가 “善”으로, “哉”가 “惑”으로 각각 교체되었다. 이후 출판된 브리지먼의 영역본과 한국어 번역본도 B본을 따

라 누락, 결락, 재배열되어 있다.

A	B	A	B	A	B	A	B	A	B	A	B
[170]	[229]	[172]	[229]	[172]	[231]	[176]	[231]	[176]	[231]	[176]	[233]
											

4. 『천주총론』과 라틴어 번역본의 비판 정보와 번역

위에 제시된 연구 과정을 통해서, 필사본과 최초 비평본 그리고 그 이후에 출판된 번역본들을 바탕으로 여러 판본 간의 차이와 교정 내용을 포괄하는 비판 정보(editio critica)과 새로운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비판 정보에서는 필사본의 순서와는 달리 저본인 한문본과 한국어 번역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라틴어 번역본과 한국어 번역을 제시하였다. 본 비평본에서 사용된 문헌과 약어는 다음과 같다.

- A: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필사본(1728)
- B: 말라카본(1831)
- C: 브리지먼의 영역본(1847)
- D: 서가회장서루본
- E: 한국어 번역본(2020)

DE DEO ET ATTRIBUTIS DIVINIS

GENERALIS DISCURSUS.

천주와 신적 속성들에 대한 총론

[168] 自開闢¹⁶而來, 先聖後聖, 所相授受之大道也, 皆宗帝天上帝,¹⁷ 以爲萬物之大本者也.

개벽 이래 옛 성인과 후대 성인들이 서로 전수해 온 대도(大道)는 모두 하늘의 주재자이자 지극히 높으신 주(帝天上帝)를 만물의 큰 근본으로 여겨서 존송하는[宗] 것이었습니다.

[167] Ab exordio mundi usque nunc, doctrina quam omnes Sancti per generationes singulas sibi tradiderunt, summo in loco et honore semper habuit dominatorem caeli supremum Dominum, utpote qui sit rerum omnium magna radix.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인들이 각 세대를 거쳐 서로에게 전해 준 교리(doctrina, 大道)는 하늘의 주재자(dominator caeli, 帝天)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주(supremus Dominus, 上帝), 곧 만물의 큰 근원이신 그분을 언제나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가장 높은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蓋萬物之有主, 猶木之有根, 川之有源, 國之有君, 家之有長, 身之有首.

대개 만물에 주(主, 주재자)가 있는 것은 나무가 뿌리를 가지고 강이 원천을 가지며 나라가 군주(君)를 가지고 집이 가장을 가지며 몸이 머리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Res quippe omnes habent Dominum, sicut arbor radicem, amnis fontem, regnum ducem, domus patrem-familias, et corpus caput.

16 闢: E 辟.

17 帝天上帝: BCDE 上帝天主.

무릇 만물은 주(Dominus, 主)가 있는데, 이는 나무가 뿌리를, 강이 원천을, 나라는 군주(dux, 君)를, 집이 가장을, 몸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然無首則身不立，無長則家不齊，無君則國不治，無源則川不決，無根則木不登。無帝則物¹⁸不生。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몸이 설 수 없고, 가장이 없으면 집이 가지런하지 않으며, 군주가 없으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원천이 없으면 강은 흐르지 않으며,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주재자[帝]가 없으면 만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Tolle caput, et corpus stare non poterit ; tolle patrem-familias, domus non erit in pace, tolle regem, et conturbabitur regnum¹⁹ ; tolle fontem, fluvius statim arescet ; tolle radicem, arbor non crescet. Si desit [169] Dominus nulla res umquam existet.

머리를 제거하면 몸은 서 있지 못하고, 가장을 제거하면 집은 평화롭지 못하고, 군주(rex 君)를 제거하면 나라는 혼란하게 되고, 원천을 제거하면 강은 즉시 마르고, 뿌리를 제거하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주(Dominus, 帝)가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苟有根焉，夏之果蓏²⁰於是乎實。有源焉，海之川流於是乎進。有君焉，國之寧謐於是乎定。

진실로 뿌리가 있으니 여름의 과실이 그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원천이 있으니 바다로 흐르는 강물이 그에 따라 흘러갑니다. 군주가 있으니 나라

18 物: E 없음.

19 tolle patrem-familias, domus non erit in pace, tolle regem, et conturbabitur regnum: B 없음.

20 蓏: E 赫.

의 안녕과 평온이 그에 따라 정립됩니다.

At vero quia est radix, ideo arbores et plantae²¹ per aestatem fructus parturiunt. Quia datur fons, ideo amnes omnes suum peragunt iter. Quia regnat princeps, ideo firma pax viget in imperio.

그러나 진정으로 뿌리가 있으므로 나무와 식물이 여름에 과일을 맺게 됩니다. 원천이 제공되므로 모든 강이 자기 여정을 완수합니다. 군주(princeps, 君)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제국에는 확고한 평화가 강화됩니다.

有長焉，一家之人於是乎宜。有首焉，身之百體於是乎通。有主焉，天地壹壹 [170]於是乎成。而萬物化醇於是乎行矣。

가장이 있으니 한 집안의 사람들이 그래서 화목해집니다. 머리가 있으니 몸의 모든 지체가 그래서 소통됩니다. 주(主)가 계시니 하늘과 땅의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루어지고, 만물의 변화와 정연함이 그래서 시행됩니다.

Quia pater-familias praeest domui, ideo omnes tranquille habitant in domo. Quia stat caput, ideo omnia corporis membra inter se communicant ; et sic demum quia existit supremus omnium Dominus, ideo secreti caelorum terraeque influxus perficiuntur, et rerum omnium conversiones fiunt.

가장이 집에 있으므로 집안 모든 이들이 평안하게 됩니다. 머리가 있으므로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 소통합니다. 결국 모든 이들 중에 가장 높으신 주(supremus Dominus, 主)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비밀스러운 작용이 완성되고, 만물의 순환이 발생합니다.

惟一大主，群²²生本源，萬方君師，烝²³民父母，無形而形，無象而象，非天

21 arbores et plantae: B plantae et arbores.

22 群: BCD 羣.

23 群: E 蒸.

而天天, 非地而地地, 無聲無臭, 無限無量, 無始無終, 全能全知, 全善全美, 惟純惟一, 自誠自足, 可以言以指之, 曰自有者.

오직 한 분이신 대주(大主)께서는 모든 생물의 근원이시며, 온 세상의 군주이자 스승이시며, 모든 백성의 부모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시지만 형체를 이루고, 형상이 없으시지만 형상을 이루며, 하늘이 아니시지만 하늘을 하늘답게 하시고, 땅이 아니시지만 땅을 땅답게 하십니다.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한계도 없고 한량도 없으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전능(全能)하시며, 전지(全知)하시며, 전선(全善)하시며, 전미(全美)하시며, 순수하시며[惟純], 유일(惟一)하시며, 자체로 성실하고 자체로 충족하십니다. 그분을 말로 가리킬 수 있다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自有者]라 합니다.

Unicus Dominus Deus omnium quae vivunt et existunt fons et origo, totius universi rector et doctor, populorum omnium pater-mater est ; incorporeus omnia corporea²⁴ producit ; invisibilis omnia visibilia creat ; non est caelum sed facit ut caelum sit caelum ; non est terra, sed facit ut terra terra sit, Ipse solus, sine sono, sine odore, sine limite, sine termino, sine initio, sine fine ; omnipotens, omniscius summe bonus, summe pulcher, [171] summe simplex et unus, a se ipso veritas abunde sibi sufficit. Uno verbo illum utcumque indigitare licet, dicendo quod sit ens a se.

유일하신 천주(Dominus Deus, 大主)는 살아있거나 존재하는 만물의 원천이며 기원이시며, 온 세상의 군주(rector, 君)이자 스승(doctor, 師)이시며, 모든 백성의 부모이십니다. 그분은 형체가 없으시면서 형체를 가진 모든 것들을 낳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분은 하늘이 아니시지만, 하늘을 하늘답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땅이 아니시지만, 땅을 땅답게 만드십니다. 그분만이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제한도 없고

경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전능(omnipotens, 全能)하시며, 전지(omniscius, 全知)하시며, 전선(summe bonus, 全善)하시며, 전미(summe pulcher, 全美)하시며, 완전히 순수(summe simplex, 惟純)하시며, 유일(unus, 惟一)하시며, 진리가 그 자체로 넘치도록 넉넉하십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ens a se, 自有者)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惟自有者, 爲能有諸有而未始受有. 惟自有者, 爲能無無. 是乃至有獨有全有, 而不得不有. 其有其足, 其誠其福, 其德其美, 俱自然而然而²⁵不得不然者也.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으며 앞서서 존재를 부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없는 것이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존재[至有]이자 유일한 존재[獨有]이자 완전한 존재[全有]이시니, 존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하심[有], 그분의 자족하심[足], 그분의 성실하심[誠], 그분의 복됨[福], 그분의 덕[德], 그분의 아름다움[美]은 모두 필연적으로 그러하며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Solum ens a se dat existentiam omnibus quae existunt extra se, nec esse suum ab ullo accipit. Solum ens a se nihil habet nihili, sed est extremum ens, perfectum ens, totum ens, nec potest non esse ens. Ejus ens, ejus independentia, ejus veritas, ejus bonum, ejus pulchritudo, necessaria sunt quod sunt, nec possunt non esse quod sunt.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자신 밖에 존재하는 만물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고, 그 자신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지극한 존재(extremum ens, 至有)이시며 완벽한 존재(perfectum ens, 獨有)이시며 완전한 존재(totum ens, 全有)이시

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함(ens, 有), 그분의 자족함(independentia, 足), 그분의 진실함(veritas, 誠), 그분의 선함(bonum, 福德), 그분의 아름다움(pulchritudo, 美)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惟自有者, 有知有意, 有志有情, 有仁有義, 有感應之神能, 有好惡之公理, 有自主之權衡. 是故, 其施乎[172]外, 而造天造地生神生人者, 皆非自然而不得不然.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지혜[知]와 의지[意], 뜻[志]과 욕구[情], 인[仁]과 의[義], 감응하는 신적인 능력[感應之神能]과 좋음과 싫음의 공정한 원리[好惡之公理]와, 스스로 주관하는 권형[自主之權衡]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밖으로 베풀어 하늘을 만들고[造天], 땅을 만들며[造地], 천사를 낳고[生神], 인간을 낳으심[生人]은, 모두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Ens a se habet a se solo ut cognoscat, ut intendat, ut velit, ut diligat, ut bonum et justum sit, ut spirituali modo excitet et respondeat, ut justissime aversetur et amet, ut aequissimo Dominii ac libertatis arbitrio cuncta ponderet. Quamobrem cum operatur ad extra, sive caelum terramque creet, sive spiritus hominesque producat. Haec omnia non existunt necessario ita ut non possint non existere.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은 오직 스스로 알고 계시고, 의도하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선(bonum, 仁)하고 정의로우시고, 신적인 방식으로 자극하고 응답하시고, 가장 정의롭게 싫어하시고 사랑하시고, 주권과 자유의 가장 공평한 의사(aequissimum Dominii ac libertatis arbitrium, 自主之權衡)로 모든 것들을 숙고하십니다. 그 때문에 이 의사가 밖으로 작용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영(spiritus, 神)들과 인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 아

닙니다.

蓋²⁶造天地萬物, 非是, 如²⁷不得不造焉, 存天地萬物, 非是, 如²⁸不得不存焉, 乃並由大²⁹主之意而然者也. 欲³⁰生物, 則好生之心於是乎出, 欲不生, 則自足之尊於是乎顯. 生焉而欲不存, 則自主之權於是乎行, 無然而無不然, 無可而無不可.

대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은 창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니며, 천지 만물을 보존하심은, 반드시 보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두 대주(天主)의 의지[意]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을 낳기를 원하시면, 생명을 좋아하시는 마음이 그로 인해 드러나고, 낳지 않기를 원하시면, 자족하신 분의 존귀함이 그로 인해 나타납니다. 낳되 보존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스스로 주관하시는 권능[自主之權]이 그로 인해 실행되며, 그러한 것도 없고 그러하지 않은 것도 없으며, 그래야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Igitur quando produxit caelum, terram, resque omnes, non existimandum est quod haec omnia non poterat non producere ; quando conservat [173] caelum, terram et res³¹ omnes, non putandum est quod non possit non³² conservare si velit. Nimirum cuncta pendent a libera supremi Domini voluntate ut sint vel non sint. Si mundum velit producere, sic optimum res producere amantis cor ad extra exit. Si mundum vult non³³ producere,

26 蓋: D 盍.

27 如: D 實.

28 如: D 實.

29 大: BCDE 天.

30 欲: D 然.

31 et res: B resque.

32 non: B 없음.

33 vult non: B non vult.

sic perfecta sibi sufficientis independentia clare apparet. Si quod produxit velit non conservare³⁴ ; sic liberum a se dominantis arbitrium exercetur. In his omnibus nullo modo determinatur ad hoc vel ad illud, ita ut hoc bonum sit, illud autem malum, hoc liceat, illud autem non liceat.

그러므로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 이 만물을 지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실 때, 그분이 원하신다면 보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즉 모든 것이 생기든 사라지든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최고의 것을 만드시는 것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족하신 자의 완전한 자족함(independentia, 自足)이 명백히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든 것을 보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이처럼 스스로 주권을 행하는 자의 자유의사(liberum a se dominantis arbitrium, 自主之權)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이 만물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이나 저것에 대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며, 이것은 허용되고 저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될 수 없습니다.

有天地萬物, 於自有者無所益, 無天地萬物, 於自有者無所損.

천지 만물이 있어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게 더해지는 것이 없으며, 천지 만물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게 덜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Ratio est quod realis existentia caeli, terrae rerumque omnium, supremo enti, quod a se est, nihil addit, et caeli terrae rerumque omnium non existentia supremo illi enti nihil tollit.³⁵

그 이유는 천지 만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서, 스스로 계시는 지극히 높

34 quod produxit velit non conservare: B conservare non velit quod produxit.

35 tollit: B aufers.

으신 존재에게 어떤 것도 더해지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극히 높으신 존재에게 어떤 것도 빼앗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生之不煩其力, 存之不擾其靜, 滅之不傷其仁. 有之無之, 不變其恒, 生也存也滅也, 雖以時而始行, 而或生之, 或存之, 或滅之之旨,³⁶ 則自無始而有定.

그것들을 낳으심에 자신의 힘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심에 자신의 고요함을 동요시키지 않으시며, 멸하심에 그 인(仁)을 해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자신의 항상됨을 바꾸지 않으며, 낳음과 보존함과 멸함이 때를 따라 비로소 행해지더라도, 그것을 낳거나 보존하거나 멸하고자 하는 뜻은 시작이 없던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Quando omnia creat non laborat, quando omnia conservat non movetur. Licet omnia extinguat, id summe ejus bonitati non nocet. Caetera omnia sint vel non sint, idem semper perseverat ipse producere, conservare, destruere et extinguere, actiones sunt quae fiunt in tempore ; sed decretum et voluntas producendi, conservandi, vel destruendi, fixum et ratum est ab aeterno et ante omne tempus.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수고도 아니하시며, 만물을 보존하실 때 동요치 아니하십니다. 만물을 멸하시더라도 그분의 지극한 선하심(bonitas, 仁)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만물이 생기든 사라지든, 그분은 항상 똑같이 생산하고, 보존하고, 파괴하고, 소멸하는 일을 진행하시며, 이 일들은 알맞은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생산하고, 보존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작정과 의지는 영원 전부터 모든 시간 이전에 정해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36 之旨: BCE 之者: D 者.

[174] 是故變化庶類，而自不變化，始終萬物，而自無終始，體萬物，而³⁷不與物同體。包萬時，而不與時推移。其時也不流，其有也不逝，其行也無動，其靜也無息，

그러므로 모든 종류를 변화시키지만, 자신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만물을 시작하게 하고 끝내지만, 자신은 시작도 끝도 없으십니다. 만물에 실체를 부여하지만[體] 만물과 실체를 함께하지[與物同體] 않으십니다. 모든 시간을 포괄하시지만, 시간과 함께 흘러가지[與時推移]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흐르지 않으며, 그분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으며, 그분의 행하심은 움직임이 없으며, 그분의 고요함은 멎음이 없습니다.

[175] Quapropter mutat et converit omnia, nec tamen ipse mutatur aut convertitur, dat rebus omnibus³⁸ principium et finem, nec ipse finem aut initium habet, rerum omnium substantiis intime conjungitur, nec tamen ejusdem³⁹ cum rebus substantiae est. Res omnes complectitur, nec temporum experitur vices. Ejus tempus non fluit, ejus existentia non transit, ejus actio est sine motu, ejus quies est sine requie.

그러므로 그분은 만물을 변형시키고 변화시키지만, 그 자신은 변형되거나 변화되지 않으십니다. 만물에게 시작과 끝을 주시지만, 그 자신은 끝도 시작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실체(substantia 體)에 밀접하게 결합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실체(substantia 體)는 만물과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포용하시지만, 시기의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그분의 존재하심은 스쳐지나가는 것이 없으며, 그분의 행하심은 요동이 없고, 그분의 안식은 멎음이 없습니다.

37 而: C 無.

38 rebus omnibus: B omnibus rebus.

39 ejusdem: B ejusmodi.

至玄⁴⁰而非虛, 至穆而非無, 至遠而不可遺, 至近而不可援.

지극히 현묘하되 공허가 아니며, 지극히 고요하되 무(無)가 아니십니다. 지극히 멀리 계시나 떨어질 수 없으며, 지극히 가까이 계시나 붙잡을 수 없습니다.

Nihil illo magis abditum et secretum, nec tamen est merum vacuum. Nihil remotum ac profundum magis, nec tamen est merum nihilum nihil remotius, nec tamen ab illo quidquam potest separari ; nihil propius, nec quisquam tamen illum attrahere potest est,

그보다 더 오묘하거나 은밀하신 분은 없으나, 공허함뿐인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멀고 심오하시지만, 더 멀기만 하신 것은 아니며, 아무것도 그분과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더 가까이 있을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끌어 들일 수 없습니다.

萬美蘊⁴¹乎內, 而萬德流乎外. 生生不已, 恩澤無窮, 此至仁之驗⁴²也. 好善惡惡, 公賞公罰, 此至義之昭也.

모든 아름다움이 안에 간직되어 있으며, 모든 덕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낳으며[生生不已], 그 은택은 다함이 없으니, 이는 지극한 인(仁)의 증거입니다. 선을 좋아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공정하게 상벌을 내리시니, 이는 지극한 의(義)의 명백함[昭]입니다.

omnes omnino pulcbritudines in sinu suo⁴³ habitant et virtutes omnes fluunt ad extra quod producat sine ullo fine, nec beneficium ejus sit mensura aut modus, hoc extreme ejus bonitatis effectus est. Quod amet

40 玄: D 元. 강희제(康熙帝, 재위: 1661-1722) 때 황제의 이름이 “玄燁”였기 때문에 ‘玄’이 피휘 대상이 되어 ‘元’으로 대체되곤 했다. 아래도 마찬가지.

41 蘊: DE 蘊.

42 驗: CE 念.

43 suo: B ejus.

bonos et malos odio habeat, et summa cum aequitate praemia vel paenas decernat, in eo perfecta ejus justitia splendet.

모든 아름다움이 전적으로 그분의 품 안에 거하며, 모든 덕이 외부로 흘러 나오니, 그분이 끝없이 만들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택(beneficium 恩澤)은 측정되거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으니, 이것은 그분의 지극한 선하심(bonitas 仁)의 결과입니다. 그분이 선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지극한 공평하심으로 상과 벌을 결정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완전한 의(justitia 義)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天地萬物, 一命卽有, 不藉氣質, 不待其勞, 此全能之顯也. 安排庶類, 令各得其所, 分形別性, 異性異宜, 此全智之露也.

천지 만물은 한 번의 명령으로 곧 존재하게 되었으며, 기질에 의존하지 않고, 수고를 기다리지 않으니, 이는 전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종류를 안배하여 각각이 제자리를 얻게 하시고, 형체를 나누고 본성을 구별하여, 다른 본성에는 다른 합당함을 부여하시니, 이는 전지(全智)가 드러난 것입니다.

Quod omnia eo jubente extiterunt sine ulla praesistente materia et sine ullo creantis labore, ex eo ejus omnipotentia colligitur. Quod species omnes ordine disponat, et suo quamque loco collocet, ita ut distinctis corporibus natura distincta, et diversis naturis diversa sit ratio, [177] per illud infinita ejus sapientia se prodit.

만물이 먼저 있던 물질이나 조물주의 어떤 수고도 없이 그분의 명령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으로부터 그분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모든 종을 질서 있게 배열하시고, 제자리에 두심으로, 서로 다른 육체로 서로 다른 본성이 있게 하시고, 다양한 본성(natura 性)으로 다양한 이치(ratio 宜)가 있게 하시니, 이를 통해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以安以養, 以保以存⁴⁴頃刻無間, 此至靈之效也. 人有正, 物有曲, [176] 各呈其才, 各表其德, 此至美之流也.

편안하게 하시고 기르시며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이 잠시도 틈이 없으니, 이는 지극한 영묘함[至靈]의 효과입니다. 사람이 곱음이 있고, 사물은 굵음이 있어 각각 그 재능을 드러내고, 각각 그 덕을 나타내니, 이는 지극한 아름다움[至美]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Quod universa tranquillet, alat adjuvet et conservet, sine ulla vel minima momenti temporis intercapedine, hoc summae⁴⁵ ejus intelligentiae et spirituali operationi, tanquam effectus causae tribui debet. Quod homo rectus sit et alia non ita recta, ita ut tamen quod libet ens suas dotes proferat, et virtutem sibi propriam exerat, id formosae ejus pulchritudinis argumentum est.

그분이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고 길러 주고 돕고 보존해 주는 것은, 시간의 최소한의 순간도 끊김이 없이, 그분의 지극한 지성과 영적 활동에 기인한 결과로 여겨져야 합니다. 적합한 사람도 있고, 그만큼 적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꺼이 하고자 하는 존재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자신의 덕을 발휘하는 것이 그분의 지극한 아름다움의 증거입니다.

靈蠢高卑, 相依而歸一向, 恒古恒今, 相生而同一原, 此主宰至一之徵⁴⁶也.

영명한 것과 우둔한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서로 의지하며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되고, 항상 옛적부터 지금까지 서로 낳으면서 하나의 근원을 같이 하니, 이는 주재하시는 분의 지극한 단일성의 증거입니다.

Quod entia sive ratione donata sint, sive non, resque tam altae quam infimae mutuo sese fulciant et ad unum finem tendant, semperque ab

44 以存: BCE 以; D 없음.

45 summae: B summe.

46 徵: CE 微.

initio sicut et nunc, sibi vitam invicem tradant, atque ex una eademque origine nascantur, per hoc suprema ejus Domini potestas et simplicissima ejus essentiae unitas aperte probatur.

이성이 있거나 없는 존재들과 고귀하거나 비천한 것들은 서로 격려하며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며,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처럼 서로 번갈아 가며 생명을 주고, 하나의 동일한 근원에서 태어나니, 이로써 그러한 주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과 그러한 본질(essentia)의 가장 순전한 통일성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神哉⁴⁷! 上主之大德, 同而異, 異而同, 至一而不孤, 至尊而不厲, 至大而能容, 至義⁴⁸而好怒, 至威而可愛, 至仁而可畏, 至高至玄⁴⁹, 而神也人也, 可與相通. 신묘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위대한 덕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으며, 지극히 하나이나 외롭지 않고, 지극히 존귀하나 엄격하지 않으며, 지극히 크나 모든 것을 포용하고, 지극히 의로우나 용서하기를 좋아하며, 지극히 위엄있으나 사랑을 받을 만하고, 지극히 인(仁)하시나 무서우며, 지극히 높고 지극히 현묘하시며, 천사(神)와 인간이 그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Proh! quam divinae sunt Supremi Domini excelae virtutes! Ita simul conveniunt ut different inter se, ita inter se differunt ut convenient simul. Summe unus est nec tamen solitarius; summe venerandus, nec tamen ferus; summe magnus, et nihil tamen rejicit; summe justus, et amat parcere. Augusta ejus majestas amorem inspirat; infinita ejus bonitas ad timorem excitat. Summe excellens est, et abditus; spiritus tamen et homines cum eo communicant.

47 神哉: BCE 神或; D 觀夫.

48 義: BCDE 善.

49 玄: D 元.

아아! 지극히 높으신 주(supremus Dominus, 上主)의 고귀한 덕(virtus, 德)들은 얼마나 신성한가! 그 덕들은 서로 다른 만큼이나 그렇게 함께 어울리고, 함께 어울리는 만큼이나 그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분은 지극히 하나이시지만 홀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존경을 받으시지만 난폭하지는 않으십니다. 지극히 위대하시지만, 어떤 것도 내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의로우시지만 용서하시기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위엄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은 경외를 자아냅니다. 그분은 지극히 탁월하시오 오묘하십니다. 그래서 영들과 인간들은 그분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極平極實，而意也情也，可相感應，視之而不見，聽之而不聞，雖爾不知，而常與之偕，雖爾不覺，而時受其恩。

지극히 공평하고[平] 지극히 진실되시며[實] 의지[意]와 감정[情]이 서로 감응할 수 있습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당신이 알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그분과 함께 있으며, 비록 당신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때마다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Summe aequalis et solidus, et per cordis affectus excitat et excitatur. Illum aspicias, nec vides ; auscultas nec audis. De eo non cogitas, et semper habitas cum eo. Ad eum non attendis, et sine intermissione recipis ejus beneficia.

그분은 매우 한결같으시고 견실하시며, 의지의 감정(cordis affectus)으로 감응을 주시고 감응 받으십니다. 당신은 그분을 바라보지만 보지는 못하고, 경청하지만 듣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언제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당신은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beneficia 恩)를 받고 있습니다.

噫迷哉⁵⁰世人也, 知有人倫, 而不知有天倫, 知有天地君親師, 而不知有生天生地生人之大父母, 知流而不知源, 知末而不知本.

아아, 세상 사람들의 미혹되어여! 인륜이 있음은 알지만 천륜이 있음은 알지 못하고, 하늘과 땅과 임금과 부모와 스승이 있음은 알지만 하늘을 낳고 땅을 낳고 사람을 낳은 위대한 부모가 있음은 알지 못하며, 지류는 알지만 원천을 알지 못하고, 말단은 알지만 근본은 알지 못합니다.

Eheu! Eheu! quam caeci [179] sunt hujus saeculi mortales! norunt relationes humanas et caelestes non norunt. Sciunt esse caelum, terram, regem, parentes, magistros, et nesciunt esse magnum patrem matremque qui haec omnia fecit⁵¹. Abeunt post rivus, et deserunt fontem, ramos extremos curant et de radice non curant.

아아! 아아! 이 세상의 죽을 운명의 인간들은 얼마나 눈이 먼 것일까요! 그들은 인간관계는 알고 있지만, 하늘에 관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과 임금과 부모와 스승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냇물을 쫓아가지만, 그 원천은 등한시하며, 가지 끝은 관리하지만, 그 뿌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嗚呼, 愚哉, [178] 天以覆之, 地以載之, 而天主之生育, 超乎天地矣. 君以治之, 而天主之臨, 更切乎君矣. 親以懷之, 而天主之愛, 厚乎親矣. 師以誨之, 而天王之訓, 篤乎師矣. 人施我⁵²以恩, 而天主之恩, 非世恩可比, 人賜我以福, 而天主之福, 非世福之所羨矣. 是故, 尊之也不止於君焉, 愛之也不止於親焉, 服之也不止於師焉, 感之也不止於恩人, 望之也不止於福主.

아아, 어리석습니다! 하늘은 그들을 덮어주고, 땅은 그들을 실어주지만, 천

50 哉: BCDE 惑.

51 haec omnia fecit: B fecit haec omnia.

52 我: BC 於我.

주께서 낳고 길러주심은 하늘과 땅을 초월합니다. 임금도 그들을 다스리지
 만, 천주의 임제는 임금보다 더욱 절실합니다. 부모는 그들을 품지만, 천주
 의 사랑은 부모보다 더 두텁습니다. 스승은 그들을 가르치지만, 천주의 가
 르침은 스승보다 더욱 독실합니다. 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천주의
 은혜는 세상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남이 나에게 복을 주지만, 천주
 의 복은 세상의 복이 부러워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를 존송함이 임
 금보다 더하며, 그를 사랑함이 부모보다 더하며, 그를 따름이 스승보다 더
 하며, 그에게 감사함이 은인보다 더하며, 그에게 소망하기가 복을 주는 사
 람보다 더합니다.

Eheu! quam caeci sunt! caelum omnia tegit, tellus omnia portat. At caeli
 Dominus qui producit et alit omnia longe est supra caelum et terram.
 Rex gubernat populos, at caeli⁵³ Dominus eos regit longe melius quam
 ullus rex. Parentes filios amant, at caeli Dominus homines ardentius diligit
 quam mater unigenitum. Discipulos instruunt magistri, at caeli Dominus
 suis documentis potentius nos imbuit quam ullus doctor. Homines mihi
 dona offerunt, at⁵⁴ omnia mundi bona cum domini beneficiis nequeunt
 comparari. Homines me felicem reddunt, at felicitas Domini omnem
 mundanam felicitatem supereminet. Quapropter honorari debet multo
 magis quam Rex, amari debet plus quam parentes, debet audiri diligentius
 quam ullus alius doctor, ampliores meretur gratias, quam omnes
 benefactores, major spes in eo ponenda quam in hominibus, a quibus
 expectamus felicitatem.

아아! 그들은 얼마나 눈이 먼 것인가요! 하늘은 모든 것을 덮고, 땅은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천주는 하늘과 땅

53 caeli: B 없음.

54 at: B et.

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임금은 백성을 다스리지만, 천주는 어떤 임금보다 그들을 더 잘 다스리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천주는 어머니가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스승은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천주는 그분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 어떤 스승보다 더 능력 있게 교육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주지만, 세상의 모든 재물은 주님의 은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천주(Dominus, 天主)의 복(felicitas, 福)은 모든 세상의 복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왕보다 더 존경받아야 하며, 부모보다 더 사랑받아야 하고, 어떤 다른 스승보다 더 주의 깊게 경청되어야 하며, 모든 은인보다 더 큰 감사를 받아야 하며, 우리가 행복을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그에게 더 큰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聖經曰, 欽崇天主, 信焉, 望焉, 愛焉, 而之⁵⁵之於萬有之上, 其此之謂也.

성경에서 말한 ‘천주를 흠송하는 것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니, 그를 모든 것 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Sancta scriptura ait : honore prosequendus caeli Dominus illi credendo, in illum sperando, illum amando super omnia. Istud ipsum est quod dico.

성경은 말합니다. ‘천주(caeli Dominus, 天主)는 그분 안에서 믿고, 그분 안에서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흠송(honore prosequor, 欽崇)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以可見之物, 推而言天主者, 人力不過, 若是而已. 今以人之力, 而欲測天主之妙性者, 真⁵⁶猶以蹄涔[180]而欲注海, 以螢火而欲照天焉, 果可乎哉.

볼 수 있는 사물로 미루어 천주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넘을

55 之: D 尊.

56 真: BCE 真.

수 없으니, 이와 같을 따름입니다.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 천주의 오묘한 성(性)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이는 마치 짐승 발자국에 바다를 부으려고 하거나, 반딧불로 하늘을 비추려 하는 것과 같으니,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180] Si per ea quae conspicimus ad rerum omnium conditorem ac Dominum volumus ascendere, nihil fere aliud propriis viribus assequemur quam quae hactenus dicta sunt. Velle autem humanis viribus mirabilem ejus naturam comprehendere, vere idem est ac velle totum mare exiguo cavo concludere, vel cum lucente musca totum caelum illuminare.

만일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만물의 창조자(conditor)이신 천주께 올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의 저 놀라운 본성(mirabilis natura, 妙性)을 인간의 힘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바다 전체를 패인 자리에 가두고자 하는 것과 같고, 반딧불로 온 하늘을 비추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不依聖經而論上主者, 或迫於一位而孤之, 或延⁵⁷於多主而二之. 至尊大主者, 不貳也, 不孤也. 自含有三位, 故不孤, 三位⁵⁸共一主, 故不貳. 雖然, 非秉聖經以證其然, 則吾人之心也, 其豈能思之耶哉.⁵⁹

성경에 의지하지 않고 높으신 주에 대해서 논하는 자는 한 위격[位]이라고 우겨서 그를 고립시키거나, 혹은 여러 주를 끌어들이어 둘로 만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크신 주께서는 둘이 아니시며, 또한 고립되지도 않으십니다. 스스로 세 위격을 포함하고 계시므로 홀로 계시지 않으며, 세 위격이 함께 한 분이신 주이므로 여럿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그 참됨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어찌 이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57 延: D 岐.

58 故不孤三位: BCDE 없음.

59 哉: D 없음.

까?

Si absque sacra Scriptura de Deo discurrimus, vel in eo unicam admitteremus personam, et sic solitarius erit; vel plures statuemus Dominos et sic erit multiplex. At Deus nec multiplex est nec solitarius quia tres in eo sunt personae, ideo non est⁶⁰ solitarius, quia tres personae unicum constituunt Dominum, ideo non est multiplex. Licet autem haec ita se habeant, nisi tamen sacrae scripturae auctoritatem sequamur, quando exiguis nostris viribus talia cogitare possemus.

우리가 성경 없이 천주에 대해 논하거나, 그 안에 하나의 위격(persona 位)만을 인정한다면, 그분은 홀로 계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주님을 여럿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분은 여럿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는 여럿이지 않고 그분 안에는 세 위격이 계시기 때문에 홀로 계시지도 않습니다. 세 위격이 한 천주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홀로 계시지도 않으며, 여럿이지도 않습니다. 비록 이것들이 이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보잘것없는 힘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終.⁶¹

FINIS DISCURSUS.

[총]론의 끝

5. 결론

『천주총론』과 프레마르의 라틴어 번역본은 서양에서 중국으로, 다시

60 solitarius quia tres in eo sunt personae, ideo non est: B 없음.

61 終: CDE 없음.

서양으로 번역되면서 문화적 개념의 변환과 상호작용이 일어난 전형적인 동서교류 문헌이다. 프레마르의 번역은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신학적 개념의 조정과 중국 독자를 고려한 문화적 융합의 결과물이었다. 이 문헌은 서양 선교사에 의해 작성된 한문 서학서가 다시 라틴어로 역번역된 드문 사례이며, 서양인들의 한문 서학서 이해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의 원천자료인 필사본에 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문헌의 필사본을 확보하여, 이후 출판물들과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초축 간행본(editio princeps)에서 필사본과는 다른 이문들과 오류들을 발견하여 제시하였다. 라틴어본에서 총 16군데, 한문본에서 총 10군데에서 ‘문장 결락’, ‘단어 및 문자 누락’, ‘문자 추가’, ‘어순 및 통사적 재배열’, ‘정서법적, 형태론적 변이’, ‘어구 및 단어 교체’ 등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이문들이 이후 번역본들과 연구서들에 전승되었음을 입증하였다. 즉 이 문헌에 대한 번역 및 연구가 필사본 원문이 아닌, 많은 이문을 간직하고 있는 말라카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과물로, 비판 주석 장치(apparatus criticus)를 활용하여 여러 판본 간의 차이와 교정 내용 등을 포괄하는 비판 정본(editio critica)과 새로운 번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비판 정본과 번역은 원문을 복원할 뿐만 아니라, 이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전해진 텍스트의 전승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필사본 및 목판본

- Prémare, Joseph Henri Marie de (1728), *Notitia linguae sinicae* (Bnf Chinois 9259), fols. 167 – 180.
- Standaert, Nicolas, Ad Dudink, Wang Renfang (Eds.) (2013), 『徐家匯藏書樓明清天主教

文獻續編』 14. Taipei: Taipei Ricci Institute.

단행본 및 논문

- Anna Di Toro and Luisa M. Paternicò (2025), "From Martini to Prémare: Early analytic Descriptions of Mandarin Chinese in Latin," Elisa Della Calce, Paola Mocella and Simone Mollea (Eds.), *New Perspectives in Global Latin: Second Conference on Latin as a Vehicle of Cultural Exchange Beyond Europe*, De Gruyter.
- Bridgman, J. G. (1847), *The Notitia Linguae Sinicae of Prémare*, Canton: The Office of the Chinese Repository.
- Brockey, Liam Matthew (2007), *Journey to the East: The Jesuit Mission to China, 1579-1724*,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undbæk, Knud (1991), *Joseph de Prémare (1666-1736), S. J.: Chinese Philology and Figurism*.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Prémare, Joseph Henri Marie de (1831), *Notitia linguae Sinicae. Malacca: Academia Anglo-Sinensis*.
- Kua, Paul (2020), "Prémare's Notitia Linguae Sinicae, 1728-1893: the Journey of a Language Textbook", *East Asian Publishing and Society* Vol. 10, Leiden: Brill.
- 何群雄 (Ed.)(2002), 『J. プレマールおよびその『中国語ノート』』, Tokyo: Sangensha.
- 李真(2014), 『马若瑟'汉语札记'研究』, 北京: 商务印书馆.
- 林熙強(2021), "馬若瑟《漢語割記·下編·第四章》中的西方修辭觀", 『中正漢學研究』 38, pp. 193-227.
- 곽문석·김보름(2023), "주앙 소에이루의 『천주성교약언(天主聖教約言)』...그 동서 교류 문헌으로서의 가치", 『공존의 인간학』 10, pp. 7-50.
- 곽문석·김보름(2025), "서양에서 중국으로, 다시 서양으로: 『천주총론(天主總論)』과 프레마르(Prémare)의 라틴어 번역", 『韓國教會史學會誌』 70, pp. 47-77.
- 조경환(2020), 『중국어의 지식』 1-2. 서울: 세창출판사.

원고 접수일: 2025년 7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8월 12일, 게재 확정일: 2025년 8월 19일

ABSTRACT

A Study of the *Tianzhuzonglun* and Prémare's Latin Translation

Kwak, Moon seok*

Kim, Bo reum**

A Critical Edition and Translation of the
Chinese and Latin Texts

This study conducts a philological analysis of the *Tianzhuzonglun* (天主總論, “General Discourse on the Lord of Heaven”) and its Latin translation, “De Deo et attributis divinis generalis discursus,” both preserved in the *Notitia Linguae Sinicae* by the Jesuit missionary Joseph Henri Marie de Prémare (1666–1736). While the *Notitia Linguae Sinicae* is known as one of the earliest Chinese grammars written in a Western language, the Chinese treatise and its Latin version have received little scholarly attention. The reverse translation of the *Tianzhuzonglun* into Latin constitutes a rare and valuable case of Sino–Western cultural and linguistic exchange, yet no critical edition has been available for research use. This paper compares fols. 167–180 of Prémare's autograph manuscript (BnF, Chinois 9259) with later printed editions, identifying textual variants and errors in the editio princeps. On this basis, it establishes critical editions of both the Chinese text and its Latin translation, with an apparatus criticus documenting differences

* HK Professor, Institute for Theology, Anyang University (First Author)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Theology, 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among versions and tracing the transmission history of the text.

Keywords *Tianzhuzonglun*, Prémare, Bnf Chinois 9259, Reverse Translation, Western Learning Text